

켈트의 창조영성에서 본 여성생태윤리

빙엔의 힐데가르트의 Viriditas를 중심으로

김나경 (성공회대학교 영성신학 연구교수)

- I. 들어가면서
- II. 힐데가르트의 창조영성과 생태윤리
 - 1. 살아있는 우주
 - 2. 연인으로서의 자연
 - 3. 여성생태윤리적 특성
- III. 나가면서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7.01>

• ABSTRACT •

A Women's Ecological Ethics in Celtic Creation Spirituality: Focusing on Viriditas of Hildegard of Bingen

Research Prof., Kim, Na-Kyung (Sungkonghoe University)

This article is a study on Celtic creation spirituality, an ancient form of Christianity that centers around justice, tolerance, equality for women, creativity, and a love of nature. It finds deep spiritual meaning in nature and its changes. Hildegard von Bingen(1098-1179) was particularly influential in the creation spirituality and feminine ecological ethics of the movement. As the “grandmother of German Rhineland mysticism,” she expressed Celtic spirituality through music, paintings, and writings. Her creation spirituality is characterized by understanding the world through women’s intuition and emotions, and by symbolizing the woman’s body. She believed the universe was a living mother’s body and nature was a loving lover. She also predicted the ecosystem crisis and emphasized that we must become “warriors of greening the earth,” who practice a creative spiritual life. Her creation spirituality implies an integrated model of ecotheology.

This article will describe Hildegard’s ecological view of the universe and nature by analyzing visions in her works 『Scivias』 and 『Das Buch vom Wirken Gottes』. This study will als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her ecological ethics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with women ecotheologians. Hildegard’s creation spirituality can serve as a guide for modern people facing ecological crises.

Key words: Celtic Spirituality, Hildegard of Bingen, Women's Ecological Ethics, Greening the Earth

I. 들어가면서

오늘날 창조세계는 생활폐수, 산업과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 자연재해, 식량과 자원의 고갈, 각종 동식물의 멸종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오염되는 생태계의 위기상황에서 교회와 신학이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위탁하신 창조보전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와 임무가 되었다.¹⁾ 이미 1970년대 이후 인간 사회에 제한되었던 공동선(common good)이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어,²⁾ 지구를 역동적 관계성에 기초한 생명망인 거룩한 공동체로 이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창조세계는 주체와 객체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체들의 친교”(a communion of subjects)가³⁾ 이루어지는 상호연관성과 상호관계성을 강조하는 생태윤리의 원리가 우선하는 곳이 되었다. 즉 “지구는 하나님의 목에 걸린 이콘(聖像)이다”⁴⁾

이와 관련해서 이 글은 창조영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켈트 영성에 주목할 것이다.⁵⁾ 그것은 정의, 관용, 여성에 대한 평등, 창조성과 자연에 대한 사랑에 중점을 둔 신앙생활을 지향하는 매력적인 기독교의 고대 형태이며, 기독교 이전의 세계관과 연결되는 방법으로 지구와 계절을 기념하며 땅과 바다와 공기에서 깊은 영성적 의미를 찾는다.⁶⁾ 그것은 특히 빙엔의

1) WCC 11차 총회 선언문에는 “살아 있는 행성: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지구적 공동체를 추구하며”라는 기후정의 달성을 위한 의지가 담겼다.

2) 박용범, 『기독교 사회생태윤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281.

3) Larry Rasmussen, *Earth-Honoring Faith: Religious Ethics in a New Key*, 한성수 역, 『지구를 공경하는 신앙』 (경기: 생태문명연구소, 2017), 494.

4) 위의 책, 426.

5) Sean MaDonagh, *To Care for the Earth: A Call to a New Theology*, 황종렬 역, 『땅의 신학: 새로운 신학에의 부름』 (왜관: 분도출판사, 1993), 338.

힐데가르트(Hildegard von Bingen, 1098-1179)의 창조영성과 여성생태윤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녀는 독일 라인란트 신비가를 대표하며, 4명의 여성교회박사 중 최고(最古)의 여성교회 박사로서 켈트의 창조영성을 글, 노래와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세 권의 신학 서적, 의술서, 교향곡, 설교문과 베네딕토 규칙 해설서 등을 남겼다.⁷⁾ 이 글에서는 힐데가르트의 『Scivias, 하나님의 길을 보라』와 『Das Buch vom Wirken Gottes,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비전들에 대한 미학적 분석을 통해 생태적 우주관과 자연관을 서술하고 여성생태신학자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여성생태윤리학적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II. 힐데가르트의 창조영성과 생태윤리

독일의 라인 강은 수세기에 걸쳐 그 주변에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생겨났기에 “서쪽의 갠지스”라 불려왔다. 매튜 폭스(Matthew Fox)에 의하면, 라인란트 신비주의는 켈트 영성의 전통 속에 있으며,⁸⁾ “라인란트 신비주

6) Meg Llewellyn, *The Celtic Wheel of the Year: Christian & Pagan Prayers & Practices for Each Turning* (New York: Anamchara, 2020), 11

7) 힐데가르트는 생전에 ‘라인강의 지빌레(Sybylle 마녀)’, ‘독일 예언녀’로 알려졌으며, 그녀의 작품은 『라틴교부총서』에 “성녀 힐데가르트”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1227년 시성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2년에 와서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힐데가르트를 ‘교회의 보편적 박사’로 추대했다. 힐데가르트는 음악가, 의사, 자연치료사와 의학자일 뿐만 아니라 식물학자와 동물학자로서 자연과학 분야에서 괄목할 업적을 이루었다. 그녀는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릇이 인간의 몸이라면, 영혼의 능력은 감각작용을 통해 표현된다고 주장하며, 감각과 감각능력을 ‘하나님의 모상’안으로 승격시켰다. 신창석, 『중세 여성철학자 트리오』 (서울: 일조각, 2021), 320. Hildegard von Bingen. *Ordo Virtutum*, 신창석 역. 『덕행별곡』 (서울: 힐데가르트 출판사, 2022).

8) 켈트인들은 BC 1900년경 독일 남서부와 슈트라스부르크 지역에서 발원하여 오늘날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제도로 알려진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영국제도에 살던 켈트인들이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은 늦어도 3세기 무렵이었다. Matthew Fox, Introduction and commentaries by Passion for Creation: *The Earth-Honoring Spirituality of Meister Eckhart*, 김순현 역.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대지

의 운동의 할머니”인⁹⁾ 힐데가르트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학과 영성을 통해 계승되었다.¹⁰⁾ 라인란트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은 창조에 대한 사랑과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인식이다. 그것은 대부분 라인 강을 따라 스위스로, 심지어 북부 이탈리아로 이주하여 정착한 켈트인에 의해 전해졌다. 켈트인의 종교는 철저히 자연을 지향하는 종교다. “켈트인은 자신들을 에워싼 자연 속에서 신성을 발견했다. 그들은 하늘, 산, 바위, 나무, 호수, 강, 샘, 바다 그리고 모든 동물 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숭배했다.”¹¹⁾ 이러한 라인란트 신비주의의 근원인 켈트 영성은 힐데가르트의 창조영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후 프란치스코(Francis of Assisi, 1181/2-1226)와¹²⁾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60-1327)를¹³⁾

를 품어 안은 엑카르트의 영성』(왜관: 분도출판사, 2022), 58-59.

- 9) 힐데가르트는 “최초의 독일 신비주의자”와 “라인란트 신비주의 운동의 할머니”로 일컬어졌다. Matthew Fox, *Hildegard of Bingen: A Saint for Our Times : Unleashing Her Power in the 21st Century* (Vancouver: Namaste, 2019), 63.
- 10) 켈트의 아일랜드 전통은 북유럽과 이탈리아 중부/남부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후에 패권을 쥔 남유럽 신학은 수세기에 걸쳐 교회사에서 그 사실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220여 개의 구교 교회와 예배당과 성소들에는 지금도 아일랜드의 성인들이 모셔져 있다. 아일랜드 바깥에 세워진 중요한 아일랜드계 수도원은 1090년 라티스본-독일 레겐스부르크에 세워진 수도원이다. 에크하르트는 주교 대리를 맡아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힐데가르트를 시성하고 교회박사로 승인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거점이기도하다. 1418년까지 뉘른베르크와 비엔나에 자리한 수도원들이 모두 아일랜드 계통의 수도원일 정도로 독일 교회는 아일랜드풍이었다. 이 지역은 오래된 도시로, 선사 시대부터 정착이 이루어졌고, 켈트인이 들어와 살았다.
- 11) Alwyn Rees and Brinley Rees, *Celtic Heritage* (London: Thames & Hudson 1978) 99; John B. Noss, *Man's Religions* (New York: Mcmillan 1969) 73. Matthew Fox, Matthew Fox,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58에서 재인용.
- 12) 프란치스코회의 학자인 에드워드 암스트롱은 프란치스코가 켈트 영성에 많은 감화를 받았으며, 켈트 기독교의 특징인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헌신, 기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세, 느슨한 조직, 선교의 열정, 자연에 대한 사랑”을 눈에 띈 정도로 재현했다고 주장한다. Edward A. Armstrong, *Saint Francis: Nature Mysti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34-41을 보라. Matthew Fox,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62에서 재인용.
- 13) Matthew Fox, *Hildegard of Bingen: A Saint for Our Times : Unleashing Her Power*

통해서 나타났다. 이러한 힐데가르트의 창조영성과 생태윤리는 다음과 같다.

1. 살아있는 우주

힐데가르트는 자연과 인간,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였다. 그녀의 첫 저서『Scivias』에서 힐데가르트가 본 ‘우주’는 타원의 형태로 표현된다(그림 1). 가장자리는 밝은 불빛이 끊임없이 타오르며¹⁴⁾ 별이 가득한 창공을 지나 가운데 원형의 지구에 다다른다. 이는 당시 통용되던 중세 우주관과 큰 대조를 보인다. 고대부터 내려오던 우주관은 완전한 원형의 기하학적 도식인데 반해 힐데가르트의 우주는 유기적인 달걀 형태이며,¹⁵⁾ 생동감과 자연스러운 선들로 이루어져 있다. 천체과학자의 우주관과 우주 만물을 기독교 중심으로 이해한 여성 수녀원장의 우주관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힐데가르트가 우주를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힐데가르트는 우주를 여성적으로 묘사하였다. 비정형적인 타원형은 여성의 질과 같고 가장 중심의 작은 원형들은 알 같아서 여성생식기를 연상하게 한다.¹⁶⁾ 그것은 우주가 하나님의 자궁으로써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의미

in the 21st Century, 64. 토마스 아퀴나스는 힐데가르트를 언급했고 에크하르트도 최고의 관심을 가졌다.

14) 로고스 관념보다 앞선 회람 철학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를 신적인 불과 같은 “이성-로고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며 뒤섞여지는 것으로 보았다. John Sanford, *Mystical Christianity: A Psycholog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심상영 역, 『융 심리학의 신비로운 기독교』 (서울: 한국심층심리연구소, 2018), 30.

15) 매튜 폭스에 의하면, “달같은 그 안에서 자라는 생명을 낳기 때문에 분명히 여성적인 이미지이다.” Matthew Fox, *Hildegard of Bingen A Saint for Our Times : Unleashing Her Power in the 21st Century*, 47.

16) 이은기, 『중세의 침묵을 깨 여성들: 힐데가르트, 안젤라, 카타리나의 비전과 미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63-64.

한다. 이후에 힐데가르트는 마지막 저서인 『Das Buch vom Wirken Gottes』에서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더 분명하게 밝히며, 우주의 모습을 원형으로 묘사한다(그림 5, 6, 7).

힐데가르트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이미지인 ‘바퀴의 원형 움직임’과 ‘자연의 녹색 힘’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동시에 상징한다.¹⁷⁾ 힐데가르트는 ‘우주의 알’(그림 1) 전체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세계로 보고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가장자리를 둘러싼 불, 하늘에 가득한 공기, 이들 사이를 오고 가는 물, 지구의 흙, 이 네 가지는 중세 때까지 믿어온 기본 원소이다. 우주를 묘사한 다른 그림들과 비교하면, 구성요소들은 같으나 그 형태나 상호관계, 느낌 등은 훨씬 활력이 있다. 빛에 싸인 달걀 형태에서 보듯이 더 유기적이고 역동적이며, 네 원소들은 서로 작용하고 있다.¹⁸⁾ 창조와 타락을 묘사한 〈그림 2〉의 위쪽 푸른 하늘엔 붉고 큰 별과 하얀 별들이 가득 차 있다. 왼쪽 아래 항아리 같은 곳에서 불길의 솟아 검은 연기가 뿜친다. 손가락 같기도 하고, 긴 혀바닥 같기도 한 검은 연기 중 오른쪽은 끝이 뱀으로 변하여 연초록색의 구름을 핥고 있다. 이 연초록색 구름은 오른손을 귀에 대고 붉은 불길에 귀 기울이고 누워 있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다.¹⁹⁾ 네 모서리 불(오른쪽 위), 공기(왼쪽 위), 물(왼쪽 아래), 흙(오른쪽 아래)이며, 큰 플레임은 우주다. 두 그루 나무로 낙원을 나타내었다.²⁰⁾ 이 비전은 창조와 타락에 대한 힐데가르트의 신학적 해석으로써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으며,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는 성서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하와가 아담을 유혹

17) Beverly Mayne Kienzle, *Hildegard of Bingen, Gospel Interpreter* (Lexington: Fortress Academic, 2022), 90.

18) 이은기, 『중세의 침묵을 켜 여성들』, 63. 각주 12.

19) 위의 책, 64-66.

20) 위의 책, 72.

표현된다. 피터 드롱케(Peter Dronke)에 의하면 ‘비리디타스’는 “원죄를 모르는 낙원의 초록”, “천상(하늘)의 햇빛에 대한 땅의 표현”이다.²²⁾ 인간은 풀잎 한 개도 창조할 수 없다. 흙과 씨앗이 황홀경의 춤(dance of self-ecstasy)으로 창조한다. 지구는 허락하고 인간은 경작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인간은 흙을 파괴하여 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생물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²³⁾

힐데가르트가 꿈꾸는 ‘새 하늘 새 땅’ <그림 3>의 가장 아래 원 주위의 두 개의 붉은 색 길은 불을 표현하며, 두 개의 흰색 길은 공기를 표현한다. 원(땅)의 가운데로 강물이 유유히 흐른다. 하늘에 별들이 춤춤하고, 땅에서는 식물이 소생한다. 힐데가르트는 비리디타스를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가장 밝은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모든 어둠과 더러움이 제거될 것이다. 불은 맹렬한 열기가 가라앉고 새벽같이 은은히 타오를 것이요, 물은 홍수같이 거센 힘이 가라앉고 투명하고 잔잔해질 것이며, 대지는 거친 용틀임이 사라지고 단단하고 평평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고요함과 아름다움으로 변할 것이다.²⁴⁾

힐데가르트는 『Das Buch vom Wirken Gottes』에서 신비의 팔, 곧 천사의 날개(품)에 안겨 보호받고 있는 창조세계(우주)를 표현한다. “신이 당신을 안아줍니다. 당신은 신의 신비의 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²⁵⁾ 또

22) 위의 책, 74.

23) 위의 책, 339.

24) Christian Feldmann, *Hildegard von Bingen: Nonne und Genie*, 이종한 역, 『빙엔의 힐데가르트』 (서울: 분도출판사, 2017), 53-53.

25) Uhlein Gabriele, *Meditations with Hildegard of Bingen*, (Santa Fe: Bear and Company, 1982), 90. Matthew Fox, *Hildegard of Bingen A Saint for Our Times : Unleashing Her Power in the 21st Century*, 37에서 재인용.

한 <그림 4>의 어린양 부분에 원형의 우주가 나타나며, 날개는 불타는 원형으로 변화되어 표현된다. 그것은 <그림 5, 6, 7>로 연결되며, 오른손(어린양)에서 뻗어나오는 ‘하얀 광선(하나님의 손: 성령)’은 불타는 수레바퀴의 회전을 상징한다.



『Das Buch vom Wirken Gottes, 하나님이 이루신 일』1163-1173작업 (75세 완성)
 신성과 인성, 날개, 카리타스-뜨거운 사랑- 가운데 선 인간
 어린양 우주 -켈트십자가 ⊕
 <그림 4> 비전 1-1 <그림 5> 비전 1-2= <그림 6> 비전 1-3

“내가 보니”로 시작하는 <그림 7>은 지구 표면에 들어나는 자연의 힘, 천체와 “원소”의 영향을 설명한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힐데가르트의 예언자적 비전이다. 비전 1-3<그림 7>이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사분면의 시계방향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²⁶⁾

- ① (왼쪽 상단) 불의 영역 (Lucidus ignis)에서 오는 재: 위쪽 불덩이가

26) *Yale journal of biology and medicine* 78(2005), 57-82. Hildegard of Bingen, *The Visions of Hildegard of Bingen* Charles Singer, London, England, 72. 또한 힐데가르트는 창조 세계의 변화와 인간의 장기의 상태를 동물들(표범, 늑대, 곰, 사자, 개, 사슴, 양, 뱀)의 특징과 기질을 통해서 표현한다.

휘어져 재처럼 땅에 던져지고, 사람과 짐승과 열매에 발진과 궤양이 생기게 되었다. 과일을 입으로 들어 올리는 열기로 인해 옷을 벗은 여성과 다리에 발진이 있는 남성이 있다. 나무들도 재의 영향을 보여준다. 세 그루 중 두 그루는 과일과 잎이 벗겨졌다. 땅의 색은 혼탁한 회색 잿 빛을 띄고 있다.

② (오른쪽 상단) 검은 화재(ignis niger)에서 나오는 증기: 어떤 증기가 내려왔고, 푸른 식물을 시들게 하고 들판의 습기를 말렸다. [Purus aether 공기는 이러한 재와 증기에 저항하여 재앙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땅은 건조해졌다. 도끼를 움켜쥐고 앉아있는 사람과 다리에 발진이 있는 사람이 뺨이에 기대어 쓸쓸하게 앉아있다. 땅은 메마른 색으로 표현된다.



우주.환경문제
〈그림 7〉 비전 1-3

③ (오른쪽 하단) 특정한 고정된 별들이 배치된 (fortis et album lucidusque aer)의 구름: 어떤 구름들이 땅에 닿아 사람과 짐승들을 역병으로 감염시켜 많은 병을 앓았다. 순수한 물(Aer aquosus)에 의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치지는 앓았다. 고뇌에 빠진 사람이 과일 바구니를 모으고 역병으로 누워있다. 왼손은 가슴에 얹고 오른손은 허벅지에 힘없는 다리에 역병을 가리킨다. 그 너머에 짐승 시체가 있다. 땅의 상태가 조금 회복된 듯 표현된다.

④ (왼쪽 하단) 축축한 수분: 공기 중의 수분이 지표면 위에서 끓어오르

는 것처럼 땅의 힘을 일깨우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을 보았다(Migne, col. 807).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유익한 영향이 나무와 약초에 떨어져 행복한 사람들은 그 결과를 얻고 있다. 그것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처럼 물이 떨어지지 않는 물댄 동산이다. 땅은 생기를 품은 비옥한 땅, 초록 빛(Viriditas)으로 표현된다.

이와같이 힐데가르트는 <그림 7>의 비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생태위기를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초록의 성장(viriditas) 또는 강인함의 힘”인 전능한 “생명의 바퀴”가 그들을 돌려세우지 않는 한, 그들은 “걸거나, 서 있거나, 또는 보일 수 없다.”²⁷⁾ 힐데가르트는 『Scivias』에서 이 나무의 수액을 인간 몸 속의 영혼과 비교한다. 눈에 보이는 작은 생명체들의 탄생, 생명과 성장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즉 영(Spirit)과 초록의 성장(Viriditas)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힐데가르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보이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봄과 여름에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생명체의 생애 주기를 지켜보는 것은 우리를 창조와 재탄생의 순환적 신비로 이끈다.²⁸⁾ 힐데가르트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혹은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존하는 역동적인 유기체로써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살아있는 우주로 이해하였다. 그것은 그림1-7에서 어머니(혹은 자궁/양수)로 표현되었다. 초록(Viriditas)은 대지의 분비물이고, 자연과 인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 독일에서는 자연 요법이 대중적인 인기를

27) Hildegard von Bingen, translated by Beverly Mayne Kienzle, *Homilies* (Minnesota, Liturgical 2011). *Homilies*, 35, 143-144. Beverly Mayne Kienzle, *Hildegard of Bingen, Gospel Interpreter* (Lexington: Fortress Academic, 2022), 89에서 재인용.

28) Hildegard of Bingen, translated by M. C. Hart, J. Bishop, B. Newman, *Scivias* (New York: Paulist press, 1990), *Scivias*, 124. Beverly Mayne Kienzle, *Hildegard of Bingen, Gospel Interpreter* (Lexington: Fortress Academic, 2022), 89에서 재인용.

누리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온천이다. 특이점은 몸 담그기만 이 아니라 마시는 온천수도 인기가 있다.²⁹⁾

이러한 힐데가르트의 견해는 히브리 성서의 창조설화와 연결된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하시니, 그대로 되었다”(창1:24). 땅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창조를 행하는 자다. “낸다”(bring forth)는 산모에게 사용된다. 땅이 생명의 어머니 노릇을 한다.³⁰⁾ 우리는 땅에서 나왔으며, 땅을 경작하면서 그 위에서 잠시 살다가, 그것으로 되돌아간다.³¹⁾ 본회퍼는 1929년 2월 “기독교 윤리의 기초적 질문들”에서 동일한 의미의 말을 회중들에게 했다.

오직 땅의 깊은 곳을 통해서 영원의 창문이 우리들에게 열립니다...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남아계시듯, 이 땅 지구는 우리 어머니로 남아있는 것이며, 어머니에게 오직 진실하게 남아있는 자들만이 그녀에 의해서 아버지의 팔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땅과 고난(Earth and its distress) 그것이 기독교인의 ‘노래들 중의 노래’(Song of Songs)입니다.³²⁾

29) 이케가미 슌이치, 김경원 역, 『숲에서 만나는 울울창창 독일역사』 (서울: 돌베개 2018)을 참고하라.

30) 루터는 흙과 영혼(soil and soul)의 관련성을 주목했다. 흙으로 된 피조물인 아담(adam)의 사명은 흙의 수호자로서 경작하고 보존하고 돌보는 양육자다. ‘하와(Hava)는 “생명 있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찾고 있는 깨달음은 경이로움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불타고 있는 떨기 숲을 보면서 “거룩한 땅”위에서 있는 것을 알게 한 그런 경이로움(출3:3-5)이다. Larry Rasmussen, 『지구를 공경하는 신앙』, 419.

31) 밭을 갈고 보존하는(till and keep)것은(창2:15) “섬기고 보호하는 것”(l’ovdah ul’ shomrah)이며 히브리어의 양육한다는 뜻과 동의어다. Larry Rasmussen, 『지구를 공경하는 신앙』, 330.

32) D. Bonhoeffer, “Basic Question of a Christian Ethic,” *DBWE 10:377-78*. Larry Rasmussen, 『지구를 공경하는 신앙』, 141에서 재인용.

2. 연인으로서의 자연

창조영성은 성서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이며, 또한 모든 지혜 문학이 출현하게 된 전통이다. 예수가 지혜 전통에서 나왔다는 성서학자들의 주장은 역사적 예수의 세계관이 창조 영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전통은 인간의 죄(원죄)가 아닌 하나님의 원복(original blessing)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선함을 뜻하는 축복의 전통으로써 켈트신앙의 핵심이다.³³⁾ 그러나 창조영성은 4세기 이후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원 패러다임(창조-타락-구원)에 의해 약화되었다가 독일 라인란트 신비주의자들에게서 다시 강조되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수세기에 걸쳐 교회를 지배하던 구원 패러다임을 돌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 영성을 버리고, 서양의 영성에서 끊어졌던 신비주의와 손을 잡은 예언자 정신, 자비를 지향하는 영성, 사회정의와 의식의 성장을 담은 창조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³⁴⁾

힐데가르트는 매튜 폭스가 신비주의자의 운명은 “세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과 창조에 대한 사랑으로 완전히 불타는 신비주의자였다. 그녀의 음악, 말과 그림에서 불꽃같은 생명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³⁵⁾ 힐데가르트는 다른 신비주의자들과 달리 창조영성을 여성적인 풍성함을 통해서 여성생태윤리적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참으로 그녀의 시는 지구에 대한 열광적이고 감성적인 사랑으로 요동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저작들에서 자연 세계의 지극히 심오하고 본질적 과

33) 예수를 포함한 유대인은 ‘원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명력을 베라카(berakhah), 곧 “복”이라 불렀다. Matthew Fox,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245.

34) 위의 책, 83.

35) D. Bonhoeffer, “Basic Question of a Christian Ethic,” *DBWE 10*, 377-378. Matthew Fox, *Hildegard of Bingen A Saint for Our Times: Unleashing Her Power in the 21st Century*, 65.

정의 독특한 여성적인 체험을 포착하여 노래한다.³⁶⁾ 우리가 이미 힐데가르트
의 비전에서 보았듯이(그림 1-7) 그녀는 창조세계에 대해 모호함이나
주저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지상의 육적이며 생물적인 자
연을 언급하면서 전혀 혐오나 반감이 없다.³⁷⁾ 또한 그녀는 거룩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연 세계로부터 물러날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자
연은 기쁨과 경탄, 찬양과 경외, 사랑을 일으켜준다. 자연은 아름답게 단
장되어 있어, 창조자조차 입을 맞추고 포옹하기 위하여 연인으로 가장한
채 자연에게로 다가간다.³⁸⁾ 힐데가르트에게 자연은 모든 인간들이 사랑
해야 할 어머니이며 연인이다.

땅은 동시에 어머니입니다.
 땅은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모두의 씨앗들이
 땅에 보듬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땅은
 모든 축축함과
 모든 푸르름과
 모든 받아시키는 힘을 보듬고 있습니다.
 땅은 다양하게 풍성한 결실을 냅니다.³⁹⁾

36) Matthew Fox, *Illuminations of Hildegard of Bingen*, (Rochester: Bear & Co., 2002). Sean MaDonagh, 『땅의 신학』, 224에서 재인용. 프란치스코가 보여준 모든 창조물들
에 대한 형제적 배려는 모두 실재에 대한 남성적 접근 방법이다.

37) 대부분의 영성 서적들은 반(反)목적적이고 반(反)창조물적 견해를 나타낸다. 토마스 아
캠피스(Thomas a Kempis)의 『준주성범』(Imitatio Christi)은 “열정”(passio)을 부정
적 의미로 사용하며, 자연에 대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내가 창조물을 찾아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 삶을 외면하는
이러한 전통은 불행하게도 교회에 여전히 만연하다. Sean MaDonagh, 『땅의 신학』,
225, 329.

38) Uhlein, *Meditations with Hildegard of Bingen* 65. Sean MaDonagh, 『땅의 신학』,
224-225.에서 재인용.

힐데가르트는 세계 창조의 의미와 완성을 사랑에 두었다. 사랑은 우주의 모든 사물에 개별적으로 작용하여 우주의 완성을 추구하는 힘이다. 그녀는 이 에로스적 사랑을 생물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실현해야 할 인간적 실존이라고 강조한다.⁴⁰⁾ “창조는 친밀한 사랑 속에서 마치 연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창조자에게 허락됩니다.”⁴¹⁾ 그것은 영적 체험에 꼭 필요한 요소인 즐거움과 기쁨이다. 이러한 에로틱한 창조영성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의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적인 잠재력의 끊임없는 확장이다. 그것은 우주의 끝을 건드리고, 새로워진 우리의 원초적 근원으로 우리를 되돌리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성장이다. 그것은 경쟁적으로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의 성장이다.⁴²⁾ 직선적 사고가 지배하는 가부장적 시대는 축제의 시대가 아니다. 그러나 축제적 에로틱 에너지를 잃지 않은 의례와 어린이들의 놀이는 원형적·곡선적이다. 놀이는 고통과 분열을 해소하는 길이다. 신적인 기쁨은 우주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우주를 늘 기쁘고 새로운 근원, 참된 안식이 자리한 곳으로 되돌아가게 한다.⁴³⁾

사랑에 근거를 둔 창조영성은 자비와 정의를 지향하는 영성이다. 그것은 히브리 성서에 근거한 영성이다. 히브리 성서의 율법은 단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자연에 대한 자비와 정의를 기본 정신으로 가지고 있다.⁴⁴⁾ 자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훤은 자궁을

39) 위의 책 226에서 재인용.

40) Hildegard von Bingen, *Ursprung und Behandlung der Krankheiten*, 94. 신창석, 『중세 여성철학자 트리오』, 332., 또는 322,324에서 재인용

41) Matthew Fox, *Hildegard of Bingen A Saint for Our Times : Unleashing Her Power in the 21st Century*, 38.

42) Matthew Fox,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78-79.

43) 축제에 해당하는 유대어 카기야이는 ‘원을 그리다’를 뜻한다. 곡선적 시공간에 관한 아이슈타인의 통찰이 우리를 우주적 축제로 초대한다. Matthew Fox, *Original Blessing*, 황종렬 역, 『창조영성 길라잡이 원복』 (왜관: 분도출판사, 2018), 310-311.

뜻한다. “하나님의 신성의 뿌리는 낱음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비는 우리의 최고의 근원이다. 만물은 자비 속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우리도 낱은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으로 태어났고,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비를 낱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서학자 끌로드 트레스몽땅(Claude Tresmontant)은 성서적 유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히브리인들은 낱음의 과정, 성숙의 과정에 열정적인 주의를 기울였다.”⁴⁵⁾ 낱음과 창조성의 궁극적 행위는 자비와 정의를 창출한다. 불의는 폭력과 이분법의 궁극적 행위이지만 정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하나 됨과 신비스러운 자비를 경험하기 않으면 안 된다. 하나 됨이야말로 만물의 기초다. 왜냐하면 만물은 자비 속에서 태어났고, 거기로 돌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⁴⁶⁾ 이러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주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의와 달리 켈트영성에 기초한다.⁴⁷⁾ 켈트 전통은 ‘유스티시아’(justitia)라는 단어를 개인의 “의로움”으로 축소시키지 않는다.⁴⁸⁾ 정의는 켈트 사회의 도덕적인 규범으로써⁴⁹⁾ 개인의 의로움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의미한다.

44) 성서는 보호와 돌봄을 가르치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요구한다.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마 6:26, 28, 30).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1), 32.

45) Claude Tresmontant, *A Study of Hebrew Thought* (Paris: Desclée et Cie 1960), 26. Matthew Fox,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81-82에서 재인용.

46) 위의 책, 79-80.

47) 에크하르트는 힐데가르트에게서 많은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특히 에크하르트의 『지혜로운 영혼의 낙원』(Paradisus animae intelligentis)으로 알려진 초기 설교 모음집에는 힐데가르트의 핵심 개념과 병행하는 주제를 담은 설교 32편이 실려있다. 또한 에크하르트의 설교 쿼트 비판본 82번에는 힐데가르트 사상의 두 가지 중심 요소가 담겨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일 뿐 아니라 ‘연장’ 또는 ‘도구’라는 믿음과 생명력과 영적 은총의 토대는 바로 성령이라는 견해이다. Oliver Davies, *Meister Eckhart Mystical Theologian*, 이창훈 역, 『신비신학자 마이스터 엑카르트』 (왜관: 분도출판사, 2010), 66-74.

48) Krister Stendahl, “Judgment and Mercy”, in Paul Among, *Jews and Gentil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100f.

따라서 창조영성은 자비와 정의를 구현하는 영성이다.

힐데가르트는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창조영성을 위해 우리가 지구를 대신하여 전사(戰士)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 당신은 열정 없이, 피도 없이 살아가나요?” 이러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정의가 결핍되어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메마르고, 부드러운 선함이 없고, 미덕을 비추지 못하고, 완전히 마릅니다.”⁵⁰⁾ 그녀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사가 되어 대자연을 수호하는 것은 바로 우주적 그리스도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⁵¹⁾ 전사는 땅을 경작하고, 질을 높여주고, 육성시켜주는 정원사이고, 정원을 지키고 싸우는 동산지기이며(요20:15), 본성상 “정원의 동반자들”이다.⁵²⁾ 그것은 “인간과 비인간 공동체를 위한 최대의 선은 서로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동반자 윤리이다.⁵³⁾ 우리가 전사가 되어 싸울 때 대자연은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주는 것 같이 “비리디타스의 따듯함”을 갖게 된다.⁵⁴⁾ 비리디타스는 초록이라는 뜻을 넘어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력이다.⁵⁵⁾ 자연은 “땅의 오래 묵은 먼지들로부터 초록색 수풀이 나오는 은총의 무대다.” “지구 위에서

49) Matthew Fox,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61.

50) Claude Tresmontant, *A Study of Hebrew Thought*, (Paris: Desclée et Cie 1960). Matthew Fox, *Illuminations of Hildegard of Bingen*, (Rochester: Bear & Co., 2002), 92, 93. Matthew Fox, *Hildegard of Bingen A Saint for Our Times : Unleashing Her Power in the 21st Century*, 33에서 재인용.

51) Matthew Fox, *Hildegard of Bingen, A Saint for Our Times : Unleashing Her Power in the 21st Century*, 33.

52) Krister Stendahl, “Judgment and Mercy,” in *Paul Among Jews and Gentil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Islam Sutra 11:23, *The Qu’ran*, Larry Rasmussen, 『지구를 공경하는 신앙』, 344에서 재인용.

53) 박용범, 『기독교 사회생태윤리』 277.

54) Hildegard of Bingen, translated by Mother Columba Hart and Jane Bishop, *Scivias* (New York: Paulist press, 1990), 152. 이은기, 『중세의 침묵을 깨 여성들』, 102에서 재인용.

55) 이은기, 『중세의 침묵을 깨 여성들』, 102.

사는 삶의 영적 차원과 거룩한 영 안에서 사는 삶의 생태적 차원"은 같은 것이다.⁵⁶⁾ 자연의 은총(비리디타스)은 지구의 고통을 간과하기보다 껴안고 품어준다. 따라서 힐데가르트의 자연에 대한 접근방법은 베네딕토와 프란치스코의 방법에서 볼 수 없는 “지구의 녹색화”(greening of the Earth)라고 할 수 있다.⁵⁷⁾

힐데가르트는 비전을 말한다. “덕의 녹색 힘은 사라졌고(The greening power of the virtues faded away), 모든 정의는 쇠퇴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 공기의 상부가 첫 번째 운명(창조)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씨앗에서 지구 생명체의 녹색 힘이 감소했다.”⁵⁸⁾ 힐데가르트는 “이제 녹색으로 운명지어진 사람들 속에서”- “녹색”을 동사로 사용하고, 녹색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한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이대그림8. 만약 우리가 지구의 녹색화라는 임무를 게을리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쓰라고 주신 높고 낮은 모든 창조물이 남용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을 벌하기 위해 창조물을 허용한다.”⁵⁹⁾ 인류를 처벌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불어오는 벼락이 아니라, 실패한 생명의 그물이다. 창조 그 자체가 균형을 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수를 가할 것이다. 따라서 매튜 폭스는 힐데가르트가 관찰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다른 어떤 종보다도 창조에 더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창조의 수호자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⁶⁰⁾고 주장한다.

56) Willis Jenkins, *Ecologies of Grace: Environmental Ethics and Christal The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240. Larry Rasmussen, 『지구를 공경하는 신앙』, 182 재인용.

57) Sean MaDonagh, 『땅의 신학』, 224.

58) Matthew Fox, *Hildegard of Bingen's Book of Divine Works*, (Rochester: Bear & Co, 1987). 231. Matthew Fox, *Hildegard of Bingen A Saint for Our Times : Unleashing Her Power in the 21st Century*, 41에서 재인용.

59) Uhlein, *Meditations with Hildegard of Bingen*, 80.

60) Matthew Fox, *Hildegard of Bingen A Saint for Our Times : Unleashing Her Power*

3. 여성생태윤리적 특성

창조영성은 성서의 오랜 전통이다. 성서는 자연의 보호와 돌봄을 가르치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요구한다(레25장).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이웃과 자연에 대한 자비와 정의를 기본정신으로 하며, 창조신앙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중심의 세계관을 말한다.⁶¹⁾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원 패러다임을 따르는 서방교회에 의해 약화되었지만 교회의 위대한 신비주의자들, 켈트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동방교회를 통해서 전승되었다. 특히 이 창조영성은 켈트인들의 발원 지역인 독일 라인란트 신비주의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켈트영성의 여전사인 빙엔의 힐데가르트이다. 그녀는 상징을 만들고 관계를 직관하는 켈트식 방식으로 음악, 시와 설교, 그림을 통해 켈트의 창조 영성을 담아냈다. 이러한 힐데가르트의 창조영성은 다음과 같은 여성생태윤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녀는 여성의 눈과 마음과 감각과 직관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며,⁶²⁾ 그것을 아름다운 음악, 글과 설교, 그리고 매우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하였다(그림1-8). 그것은 한마디로 여성생태주의(Ecofeminism)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쉘리 맥페이그(Sallie McFague)가 세상을 하나님의 몸으로⁶³⁾ 인식하고, 세상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을 어머

in the 21st Century, 42-43.

61)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33.

62) 힐데가르트의 창조영성은 전통적인 기독교 창조영성과 다른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창조와 교회를 논할 때 여성적 의인 화법을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그녀는 “다양하게 변장한 영원한 여성(그 분)을 탐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에 오심과 세상 스스로 존재함을 연결시킨다.” 또한 그녀는 성령이 물리적 세계의 내적 생명과 연속성을 지닌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성령은 생명 원리이자 우리 자신의 영적·윤리적 치유 원리다. 이러한 관점은 힐데가르트가 폭넓게 사용하는 ‘푸름(viriditas)의 이미지에 요약되어 있다. Oliver Davies, 『신비신학자 마이스터 엑카르트』, 65.

63) Sallie McFague, *Model of God: Theology for an Ecological, Nuclear Age*,

니, 연인, 친구의 은유로 이해하거나⁶⁴⁾ 제이 맥다니엘(J. McDaniel)이 생태영성의 핵심을 인간과 자연 생명체의 본유적 가치의 소중함으로 자각하며,⁶⁵⁾ “관계범재신론”과⁶⁶⁾ “어머니 하나님 상”을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⁶⁷⁾ 이러한 힐데가르트의 여성생태신학은 세계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몸으로 이해하는 “유기적·생태적 모델”(Organic Ecological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⁶⁸⁾ 하지만 힐데가르트는 하나님의 몸으로써의 세상(혹은 자연)을 여성의 몸으로 표현하고(그림 1, 여성의 질, 양수) 세상을 하나님과의 유기체적 일치보다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살아있는 역동적 유기체로 이해하는 특징이 있다.

둘째, 힐데가르트의 여성생태윤리는 켈트의 창조영성과 독일 라인란트 신비주의에 근거한다. 그녀는 이원론적이고 이분적 사고를 철저히 배제한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로 질적 차이가 있듯이 인간과 자연도 질적 차이가 있으며,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듯이 인간은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통적인 기독교 창조론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질적 차별에 상응하게 피조물들 사이의 차별을 창조질서로 이해하며, 피조물들 간의 수직적 지배관계를 강조한다.⁶⁹⁾ 하지만 힐데가르트는 하나님-인간-자연의 여성적이고 역동적인 상

(Philadelphia: Fortress Pres, 1987), 70.

64) Nancy G. Wright/Donald, Kill, *Ecological Healing : a Christian vision*, 박경미 역, 『생태학적 치유: 기독교적 전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145.

65) 이정배, “제이 맥다니엘의 생태신학연구,” 이정배외 14인, 『현대 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9.

66) 위의 책, 21.

67) Nancy G. Wright/Donald, Kill, 『생태학적 치유: 기독교적 전망』, 23.

68) 구미정, “샬리 맥페이그의 생태여성신학,” 이정배외 14인, 『현대 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90-93. 전통적인 모델은, 이신론적 모델(Deistic Model), 대화적 모델(Dialogic Model), 군주적 모델(Monarchical Model), 행위자 모델(Agential Model)이다.

69) W. Pannenberg, *Toward a Theology of Nature*, 박일준 역, 『자연 신학』 (서울: 한국신학

호 연관성을 강조하고 이 연관성을 통전적인 시각으로 이해하여 우주를 유기적 달걀 형태로 묘사한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구별된 개체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체의 존재이다(Interconnectedness).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본질들은 다른 존재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유지된다.⁷⁰⁾ 이러한 힐데가르트의 여성생태윤리는 안 네스(Arne Naess)가 주장한 모든 생명체와 생태계 자체의 권리를 존중하는 근원적 생태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생물계 전체를 하나로 보며 모든 피조물의 내재적 가치”와 그 가치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생물학적 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다.⁷¹⁾

셋째, 이러한 힐데가르트의 여성생태윤리는 재신화화 혹은 재상징화를 통해 표현된다. 홀렌베거(W. J. Hollenweger)에 의하면 성서의 창조설화는 별들을 신으로 믿는 바벨론의 신화적 신앙과 운명신앙과는 달리 자연을 탈신화화·탈신격화하여 세계를 자연의 결정론적 법칙성과 운명론에서 해방시켰다. 그 결과 자연에 대한 탐구와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연에 대한 파괴와 착취를 정당화하였다.⁷²⁾ 따라서 쉘리 맥페이그는 탈신화화된 세계를 재신화화(Remythologizing)할 것을 주장한다.⁷³⁾ 힐데가르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자신의 직관과 비전으로 통찰하고 해석하여 상징적인 그림으로 재신화화·재상징화하였다. 그것은 죽은 피조물들에게 생명력(상징: 초록, viriditas)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넷째, 힐데가르트는 인간의 생태학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하나

연구소, 1993), 64.

70) 이충범, “생태학자 빙엔의 힐데가르트,” 한국교회환경연구소/한국교회사회학회 엮음,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본 창조신앙과 생태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42.

71) 장도곤, 『예수중심의 생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87-89에서 재인용.

72)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27-28.

73) 구미정, “쉘리 맥페이그의 생태여성신학,” 93-94.

님이 창조한 정원의 동산지기와 지구의 녹색화를 위해 싸우는 전사로서 생태학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힐데가르트는 인간이 생태학적 책임을 잘 하려면 먼저 인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교회(Orthodox)의 바르톨로메우스(Bartholomew) 총대주교는 환경 문제의 윤리적인 영적 근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그 방법으로 금욕주의를 제시하였다.⁷⁴⁾ 여기서 금욕주의는 “피조물들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 속에 한 요소”로써,⁷⁵⁾ “사회와 세계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남용을 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용하도록 해주는 마음을 지니는 공공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뜻한다.”⁷⁶⁾ 하지만 힐데가르트는 단순한 윤리적 절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의 변화를 요구한다. 힐데가르트의 설교³⁵에는 축축한 녹색 생명인 비리디타스와 반대되는 메마른 상태의 죄를 특징짓는 건조함을 대조한다. 이 건조함은 눈물(상징: 물)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⁷⁷⁾ 힐데가르트는 비리디타스의 반대인 건조함을 거부하고, 눈물을 통해 건조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세례를 회개와 회심의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한다.⁷⁸⁾ 또한 힐데가르트는 『신성한 일에 관한 책』(The Book of Divine Works, 1170~1173년 작성)에서 회개의 눈물에 대해 말한다. “주님의 발 앞에서 울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진정한 회개의 눈물로 닦아내는 사람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 후 금식과 기도로 그의 살(몸)을 씻을 때, 상처를 절대 보이지 않게 가린 자주색 옷처럼 영혼을

74)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노르웨이 우트슈타인 수도원에서 한 강의 자료집, 2003.6.23.

75) Address of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Symposium on the Sacredness of the Environment, Santa Barbara, California, Final Delivery Text, 4-6. Larry Rasmussen, 『지구를 공경하는 신앙』, 410에서 재인용.

76) 위의 책, 411.

77) Hildegard of Bingen, *Homilies*, 36, 148. Beverly Mayne Kienzle, *Hildegard of Bingen, Gospel Interpreter*, 91에서 재인용.

78) Beverly Mayne Kienzle, *Hildegard of Bingen, Gospel Interpreter*, 92.

장식합니다. 영혼은 항상 사람에게 회개를 구합니다. 영혼은 회개로 덮일 것(품)을 요구합니다.”⁷⁹⁾ 우리가 금욕과 기도에 앞서 회개를 통해 비리디 타스로 충만할 때 지구 녹색화의 전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힐데가르트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생태계의 위험을 예견하고, 그 대안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곧 지구의 녹색화를 주장한다. 전통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지배성으로 이해하며, 자연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자연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대상화하였다.⁸⁰⁾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고 정복하려는 기술적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다.⁸¹⁾ 그 결과 오늘날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12세기에 힐데가르트는 예언자적 비전으로 21세기 생태위기의 현실을 바라보았다.

다시 보니, 모든 원소와 모든 생물들이 무서운 움직임으로 흔들리고 있었 습니다. 불과 공기와 물이 터져서 땅을 움직였다. 번개와 천둥소리가 부딪쳤 습니다. 산과 숲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불어넣었습 니다. 그리고 땅 전체에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 다. ‘땅에 누워 있는 너희들 일어나거라’라고 했습니다.⁸²⁾

힐데가르트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하라’고 부른다. 그것은 지구의 녹색화를 위해 전사가 되어 죽어가는 모든 창조세계를 살리라는 부름이다. 힐데가르트가 꿈꾸었던 세상은 지구의 녹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었다. 그것은 예수를 우주적 그리스도로 고백하

79) St. Hildegard of Bingen, *The Book of Divine Works* (Fathers of the Church Medieval Continuation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021) Part I, Vision 4-66, 191.

80) 장도곤, 『예수중심의 생태신학』, 56-57.

81) 이충범, “생태학자 빙엔의 힐데가르트,” 134.

82) Matthew Fox, *Hildegard of Bingen A Saint for Our Times : Unleashing Her Power in the 21st Century*, 40-41.

는 신앙이고, 하나님-인간-자연이 합일되는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만물(All things)과의 화해를 지향하는 통전적 구원이 성취된 세상이다(골1:20, 고후5:19a).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과 대립하고, 자연을 존중하지 않고 악용하며 산다면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지구와 지구환경을 포함하여 인류 이외의 다른 피조물을 잘못 이용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창조자의 관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⁸³⁾

III. 나가면서

빙엔의 힐데가르트는 독일 라인란트의 신비주의자로서 켈트의 창조영성을 음악과 시, 글과 설교, 그리고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켈트 신학자이다. 그녀는 특히 여성의 시각과 감각과 직관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통찰하였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혹은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존하는 역동적인 유기체로써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자궁이다. 즉 우주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또한 힐데가르트는 하나님-인간-자연(혹은 지구와 땅)을 서로 사랑해야 할 연인관계로 표현하였다. 자연은 창조자조차 입 맞추고 포용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대상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어머니이다. 그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인간-자연의 상호관계성을 강조하고 창조세계의 의미와 완성이 사랑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강조한다. 힐데가르트의 창조영성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지구의 녹색화(viriditas)를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와 관련해서 그녀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생태계의 위기를

83) Hizkias Assefa, *Peace and Reconciliation as a Paradigm*, 이재영 역,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춘천: KAP, 2003), 36.

예견했으며,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지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창조 세계에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전사는 눈물로 상징되는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 비리디타스로 무장한 사람이다.

이러한 힐데가르트의 창조영성은 신학사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원 패러다임이 강조된 이후 기독교에서 약화된 창조영성의 회복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녀의 창조세계에 대한 통찰과 인간의 생태학적 책임성에 대한 강조는 지구온난화로 생태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교회가 실천해야 할 과제와 임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박용범. 『기독교 사회생태윤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 장도곤. 『예수중심의 생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신창석. 『중세 여성철학자 트리오』. 서울: 일조각, 2021.
- 이은기. 『중세의 침묵을 깬 여성들: 힐데가르트, 안젤라, 카타리나의 비전과 미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 이정배외 14인. 『현대 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이케가미 슌이치. 김경원 역. 『숲에서 만나는 울울창창 독일역사』. 서울: 돌베개, 2018.
- 한국교회환경연구소/한국교회사회학회 엮음,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본 창조신앙과 생태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노르웨이 우트슈타인 수도원에서 한 강의 자료집, 2003.6. 23.
- Assefa, Hizkias. *Peace and Reconciliation as a Paradigm*, 이재영 역.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춘천: KAP, 2003.
- Carson, Rachel. *The Sea Around Us*, 김홍옥 역. 『우리를 둘러싼 바다』. 서울: 에코리브르, 2018.
- Davies, Oliver. *Meister Eckhart Mystical Theologian*, 이창훈 역. 『신비신학자 마이스터 엑카르트』. 왜관: 분도출판사, 2010.
- Feldmann, Christian. *Hildegard von Bingen: Nonne und Genie*. 이종한 역. 『빙엔의 힐데가르트』. 왜관: 분도출판사, 2017.
- Fox, Matthew. [Introduction and commentaries by] *Passion for Creation: The Earth-Honoring Spirituality of Meister Eckhart*. 김순현 역.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대지를 품어 안은 엑카르트의 영성』. 왜관: 분도출판사, 2022.(4쇄).
- _____. *Original Blessing: A Primer in Creation Spirituality*. 황종렬 역. 『창조영성 길라잡이 원복』. 왜관: 분도출판사, 2018.(5쇄).

- _____. *Hildegard Von Bingen: A Saint for Our Times: Unleashing Her Power in the 21st Century*. Namaste, Vancouver, Canada, 2019.
- _____. *Hildegard of Bingen's Book of Divine Works*. Rochester: Bear & Company, 1987.
- _____. *Illuminations of Hildegard of Bingen*. Rochester: Bear & Co., 2002.
- Gabriele Uhlein, *Meditations With Hildegard of Bingen*. Bear & Co, Santa Fe, NM, 1983.
- Hildegard von Bingen, *Das Buch vom Wirken Gottes: Liber divinorum operum* (Hildegard von Bingen-Werke Band VI), Beuroner Kunstverlag 2021.
- _____. *Homilies*, translated by Beverly Mayne Kienzle, Minnesota, Liturgical, 2011.
- _____. *Scivias*, translated by M. C. Hart, J. Bishop, NY, Paulish, 1990.
- Kienzle, Beverly Mayne. *Hildegard of Bingen, Gospel Interpreter*. Fortress Academic, 2022.
- Llewellyn, Meg. *The Celtic Wheel of the Year*. New York: Anamchara, 2020.
- Hildegard von Bingen. *Ordo Virtutum*. 신창석 역. 『덕행별곡』. 서울: 힐데가르트출판사, 2022.
- MaDonagh, Sean. *To Care for the Earth: A Call to a New Theology*. 황종렬 역. 『땅의 신학: 새로운 신학에의 부름』. 왜관: 분도출판사, 1993.
- Pannenberg, W. *Toward a Theology of Nature*. 박일준 역. 『자연의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 Rasmussen, Larry. *Earth-Honoring Faith: Religious Ethics in a New Key*. 한성수 역. 『지구를 공경하는 신앙』. 경기: 생태문명연구소, 2017.
- Sanford, John. *Mystical Christianity: A Psycholog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심상영 역. 『융 심리학과 신비로운 기독교』. 서울: 한국심층심리연구소, 2018.
- Wright, Nancy G./Kill, Donald. *Ecological healing : a Christian vision*. 박경미 역. 『생태학적 치유: 기독교적 전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Salvadori, Sara. *Hildegard Von Bingen: In the Heart of God, Von Bingen, Hildegard*, Skira, 2022.
- Sallie McFague. *Model of God: Theology for an Ecological, Nuclear Ag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Stendahl, Krister. "Judgment and Mercy." in: *Paul Among Jews and Gentil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Wilis Jenkins, *Ecologies of Grace: Environmental Ethics and Christal The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Yale journal of biology and medicine 78(2005), 57-82. The Visions of
Hildegard of Bingen Charles Singer, London, England, 72.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30일

심사개시일: 2023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2일

• 국 문 초 록 •

이 글은 켈트의 창조영성에 대한 연구이다. 그것은 정의, 관용, 여성에 대한 평등, 창조성과 자연 사랑에 중점을 둔 신앙생활을 지향하는 기독교의 고대 형태이며, 자연과 자연의 변화에서 깊은 영성적 의미를 찾는다. 그것은 특히 빙엔의 힐데가르트(Hildegard von Bingen, 1098-1179)의 창조영성과 여성생태윤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녀는 “독일 라인란트 신비주의의 할머니”로서 켈트영성을 음악, 그림과 저술로 표현하였다. 특히 힐데가르트의 창조 영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여성의 직관과 감성으로 이해하고, 여성의 몸을 상징화하여 표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녀는 우주를 살아있는 어머니의 몸이며, 자연을 사랑하는 연인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힐데가르트는 생태계의 위기를 예지하고, 창조영성적 삶을 실천하는 “지구 녹색화의 전사”가 되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그녀의 창조영성은 생태신학의 통합 모델을 함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Scivias, 하나님의 길을 보라』와『Das Buch vom Wirken Gottes,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비전들에 대한 미학적 분석을 통해 빙엔의 힐데가르트의 생태적 우주관과 자연관을 서술하고 여성생태신학자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여성생태윤리학적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그녀의 창조영성은 생태 위기에 직면한 현대인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다.

주제어: 켈트 영성, 빙엔의 힐데가르트, 여성생태윤리, 지구의 녹색화
